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 나타난 Alfred de Vigny의 삶의 姿勢

孫 炳 斌

L'attitude de vivre chez Alfred de Vigny dans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

SOHN Byeong-Moo

目 次	
I. 序 言	II. Vigny의 모랄
II. Vigny의 人格形成	A. 運命의 勝者, Vigny
A. 幼年期 및 修學期	B. Vigny의 宗教, 各譽
B. 軍隊時節	IV. 結 言
C. “Servitude” 執筆 當時의 Vigny	參考 文獻

Résumé

Nous avons essayé dans cette étude d'examiner et d'éclairer l'attitude de vivre d'Alfred de Vigny dans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 est un roman rétrospectif qui remonte jusqu'à son enfance, nous l'avons considéré plutôt comme un tableau englobant plus de moitié de sa vie que comme un tableau de son temps. L'année de la parution de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 (1835) semble avoir été un tournant qui a marqué la fin de la révolte contre les fatalités de la vie de Vigny, et d'autre part le début d'une sagesse.

Etant donné le sujet, nous avons essayé de chercher quelle était l'attitude de vivre chez Vigny, en se rapportant à sa formation et au combat intérieur mené contre sa destinée, et puis nous avons examiné “la religion de l'honneur”.

I. 序 言

우리는 人間의 理想 眞善美를 尙해 不斷히 새로 태어나고 다시 形成된다고 볼 때, 思想의 密度는 Alfred de Vigny(1797-1863)와 같은 한 作家의 人格形成에 있어서, 어느 한 해를 어두운 時期의 끝이고 밝은 時期의 始作이라고 規定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가 發表되던 1835年은 作家自身の 不運에 對한 反抗에 終止符를 찍고, 다른 한편 그의 慧智가 “純粹精神”의 産苦의 時代를 여는 轉換點으로 보인다.

한편 Vigny의 精神世界에 있어서, 1835年 以前에는 純全히 폐시미즘으로, 그 後에는 유티미즘으로 一貫된 것은 아니었다. 事實上 그의 어린 時節부터 빛과 그림자 처럼 유티미즘과 폐시미즘이 尙存하고 있었다.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는 賤民階級으로 轉落한 當時의 軍隊와 그의 軍隊生活의 한갓 描寫라기 보다는, 作家自身이 軍人이 되던 1814년까지 뿐만아니라 軍隊生活의 榮光에 陶醉되었던 幼年時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Vigny의 半生의 決算이다. 本考는 自身の 運命에 反抗으로 出發한 作家가 어떻게 마음의 平靜을 되찾고, 나아가 生의 達觀의 境地에 이를 수 있었는지, 그의 體驗 및 運命과의 鬭爭을 더듬어, 그의 삶의 姿勢를 밝히고져 한다.

“帝政과 王政復古, 前者는 나의 教育期間, 後者는 軍隊時節…… 第三期는 二年前부터 始作되었는데, 바로 七月革命下이며 이는 내 人生의 가장 哲學的인 期間이다.”고 1832년에 쓴 그의 日記(Journal d'un poète)에 의거, 幼年期 및 修學期, 軍隊時節, 同 作品을 쓸 當時의 作家로 區分하여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가 發表되던 때까지의 Vigny의 人格形成過程을 考察하고자 한다. 그의 모탈問題에 關해서는, 運命과의 果敢한 鬭爭과, 그가 宗教라는 이름으로 提示한 名譽를 考察키로 한다.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는 〈S. G. M.〉로, 〈Journal d'un poète〉는 〈J.〉로 各各 表記함

Ⅱ. Vigny의 人格形成

A. 幼年期 및 修學期

그는 위로 세 어린애를 아주 어린 나이에 잃은 한 家庭에서 태어났다. 그때 아버지는 60歲, 어머니는 40歲였다. 그의 아버지는 7年戰爭에서 입은 重傷으로 지팡이에 依支하고 걸다가 끝내는 椅子를 떠날 수 없었으며, 어린 아들에게 루이15世 治下의 逸話들을 재미있게 들려주곤 하였다. 이렇듯 不均衡한 夫婦 사이에서 어머니의 役割은 必然的으로 컸으며, 아버지가 堪當할 수 없는 일을 도맡게 되었다. 1847年 그의 日記에 依하면,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갖는 심각한 嚴格함을, 그의 아버지는 母性的인 愛情을 그에게 보여준 것으로 쓰여 있다.

“Ma mère avait pour moi la grave sévérité d'un père et l'a toujours conservée, tandis que mon père ne me montra jamais qu'une maternelle tendresse.”¹⁾

그러므로 아들의 教育은 自然히 어머니에 依해 이루어졌다. 1815年 그의 어머니가 쓴 〈Conseils à mon fils〉에는 그가 17年間이나 아들을 指導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Lorsque tu vins au monde, ton père te confia totalement à mes soins, et s'engagea à ne jamais contrarier mon plan d'éducation; il m'a tenu parole, et je t'ai dirigé, d'accord avec lui, pendant dix-sept ans.”²⁾

多幸하게도 그의 어머니는 높은 知性的인 所有者였다. 아들을 사내다운 敏捷하고 柔順한 肉体와 올바른 判斷力을 갖는 精神의 所有者가 되게하기 위해 끝없는 努力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本意 아 니게,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의 모든 것을 女性化시키고 말았다. 즉,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

1) J., p. 1260.

2) Robert Eude : A. de Vigny intime. p. 31.

너 대단히 軟弱하고 傷處받기 쉬운 感受性과 銳敏한 頭腦를 所有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全教育은 이 感受性을 緩化시키는데 있었으나, 그와는 反對로 이를 抑制시키고 감추게 하는 結果를 招來했다. 너무도 早熟했던 Vigny의 幼年期는 그의 全生涯가 보여주듯이 딱딱한 知性과 不平에 찬 感性을 瀟灑하게 하고 말았다.

시골을 알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인 그가 “18個月 되었을때”³⁾ 어머니는 그를 로슈에서 파리로 데리고 갔다. 最初의 教育은 都會風의 洗鍊된 것이었다. 그는 藝術을 崇仰하는 趣味 속에 名作들 사이에서 자라났다.⁴⁾ 그렇기에 晩年의 그는 어린이 教育問題를 言及할때 다음과 같이 부르짖고 있다.

“Toute éducation publique, religieuse ou philosophique est mauvaise et dangereuse. Ne le fatiguez pas des beautés, ne le terrassez pas dès l'enfance.”⁵⁾

이 말 속에는 自身の 教育이 되었던, 너무도 熱誠의이며, 理想的이며 美에 神經을 썼던 教育에 대한 隱密한 反撥이 드러나 보인다.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어머니의 極盛에도 不拘하고, 어린時節의 藝術만이 그를 지켜주었다.

“Nourri, enveloppé dans les langues de la beauté, vue à travers les chefs-d'oeuvre et de la convenance à travers les récits et les moeurs des plus nobles familles, je n'ai jamais pu voir les réalités grossières sans un mépris profond, sans une horreur secrète de la laideur.”⁶⁾

이러한 教育에 依해 Vigny는 무엇보다 먼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生에 대한 美學的인 永遠한 苦痛을 스스로 겪게 된다.

“Mon sentiment profond, intime, inné, c'est le déplaisir et le dégoût de la vie, non le désespoir ou la douleur en aucune sorte, mais l'horreur de la laideur.”⁷⁾

그리도 또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La première impression que me fit la nature en sortant d'une ville fut la laideur de la création en comparaison de l'art dont j'étais nourri comme d'un élixir.”⁸⁾

洗鍊된 藝術 속에서 자라난 그는, 또한 洗鍊된 名譽 속에서 자라났다.⁹⁾ 곧 이 두 影響은 서로 얽혀져, 名譽는 大衆의 粗雜한 行動으로 부터 아름답고도 稀貴한 行動을 區別하려고 하였다. “情熱的이며 아름다운 行動만이 나의 마음에 든다.”¹⁰⁾고 훗날 그는 말하고 있다.

아주 어렸을 때의 이러한 二重의 教育은 그를 藝術과 名譽의 孤獨으로 向하게 하였으며, 結局 藝術은 自然으로부터, 名譽는 大衆으로부터 그를 멀리하게 했다.

1807年, 그는 新興 부르주아階級과 高級將校의 아들들이 다니는 學校에 入學하였다. Vigny는 그곳에서 그의 타고난 純粹性과 家門의 信仰 때문에 二重으로 苦痛을 겪었다. 그의 <Mémoires Inédits>에서 “日常人, 動物, 男子, 女子에 대한 嫌惡”¹¹⁾을 알리고 있다. 대단히 清純한 性格과 格式

3) Mémoires Inédits, p. 67.

4) Citoleux : A. de vigny, Persistences Classiques et Affinités Etrangères. 1924. Chap. x.

5) J., 1852, p. 1289.

6) J., 1852, p. 1297.

7) J., 1852, p. 1297.

8) J., 1850, p. 1274.

9) J., 1847, p. 1262.

10) J., 1850, p. 1275.

11) Mémoires Inédits, p. 56.

을 따지는 그는, 그가 다니는 學校에서 俗物들의 粗雜함에 甚한 不快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¹²⁾ Vigny 自身도 그 때를 다음과 같이 우울하게 回想하고 있다.

“Les enfants du collège, dans cette détestable éducation qu’on nomme l’Instruction publique, me disaient: -Est-il vrai que tu est noble? Je leur disais: -Oui, je le suis. Alors ils s’éloignaient de moi avec un air de haine. L’un deux essaya de me pousser pour me renverser;”¹³⁾

한편 愛情과 걱정에 찬 父母는 마치 “王位繼承者”¹⁴⁾ 처럼 至大한 關心으로 兒아들을 疼반들었으며, 學校에서의 그러한 處事에 忿怒를 禁치 못했지만, 그 理由를 納得시키려고 努力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貴族은 “美國의 有色人처럼”¹⁵⁾ 따돌리며, 詛呪받고 蔑視받는 階級임을 一生을 두고 되풀이 하고 있다. 그는 天才였기에 느껴야 할 孤獨 以前에, 貴族이라는 身分 때문에 孤獨을 느껴야 했다.

學校生活에서 이같은 不運의 共同運命을 겪는 몇몇 貴族出身 學生들과 가까이 했으나, 자기 집안의 가난 때문에 또 다시 苦痛을 겪었다. “이 世上에는 오직 두 階級이 存在하는데 가진자와 벌어야 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는 “前者로 태어나 後者처럼 살아야 된다.”¹⁶⁾고 斷定을 짓고 있으니, 이는 오로지 利己의인 立場에서 自身の 쓰라린 處地를 強調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學校生活은 또 하나의 幻滅을 가져다 주었다. 他學生들의 追從을 不許하는, 그가 받는 優等賞은 級友들의 시기끼리가 되었고, 그를 害하려는 陰謀까지 꾸며졌다.¹⁷⁾ 그는 13歲에 벌써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丑마들에 대해서 強烈한 憎惡 때문에 葛藤을 겪어야 했다.¹⁸⁾ 貴族이기 때문에, 그리고 貧困 때문에 겪어야 했던 孤獨以外에 벌써 그는 才能때문에 孤獨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切의 生活과 榮光이 過去에로 돌려지던 父母의 依存을 떠나, 젊은 힘이 要求하는 現在에로 그가 나래를 펼 수 있는 곳도 또한 學校에서 였다. 學生들과 어울려 그들의 純眞한 즐거움을 함께 하며, 메일이 作曲한 <Vivat imperatorem>을 부르기도 했다.¹⁹⁾ 때는 나폴레옹의 第一帝政下에서, Vigny는 榮光을 向한 그의 最初의 꿈을 꾸고 있었다. 當時 그가 다니던 學校는 앞으로 皇帝의 侍從이 될 사람을 排出하는 곳이었다. <S. G. M.>에 나오는 Renaud 大尉도 皇帝의 侍從出身이었던 바, 이는 作家自身の 어린 時節의 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14歲에 그는 父母 절으로 되돌아와, 보나팔트 高等學校에 다녔다. 理工大學을 準備하다가, 나중에는 砲兵將校가 되려고 주로 數學을 工夫하였다.

대단히 感受性이 強한 그는 成長하면서, 異狀할 정도로 情熱的이었다. 抑制된 感性때문에 겪는 苦痛에다, 必要에 따라 發할 수 없는 情熱때문에 겪어야 하는 苦痛이 더해졌다. 그는 아주 이려서 부터 사랑을 감추어야 하는 必要性을 알게 되었다.

“Je sentais en moi dès l’enfance une abondance de tendresse et l’expression de ses témoignages trop ardents et de ses émotions trop vives s’échappaient malgré moi en toute occasion. Il me fallut prendre à seize ans le masque froid du monde. Il me fût enseigné par une femme qui m’aimait (Madame de M.).”²⁰⁾

12) Dupuy : La jeunesse des Romantiques, pp.197—198.

13) Mémoires Inédits, pp. 56.

14) Dupuy : Ibid. pp.197—198.

15) Mémoires Inédits, p. 56.

16) J., 1847, pp.1261—2.

17) J., 1847, p.1261.

18) Mémoires Inédits, p. 56.

19) Ibid. p. 56.

20) J., 1851, p.1268.

아주 어린 나이에 그는甚하고도 拒逆할 수 없는 情熱에 依해 感情을 숨겨야 하는 前보다 澈底하고 苦痛스러운 孤獨을 스스로 豫見하고 있었다. 그의 生活은 外面으로는 매우 單純하며, 얼른 보기에는 거의 不動이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平和스러운 얼굴속에 永遠히 감추어진 甚하고도 어두운 動搖”²¹⁾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참다운 文學工夫는 學校의 울타리를 벗어나, 실증을 모르는 想像力을 따라 自由롭게 혼자서 하였다. 그는 이 冊, 저 冊을 耽讀하여, 희랍어로 된 호머詩를 英語로 翻譯하였다.²²⁾ 그가 어떤 冊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作品을 쓰고자 하는 끈질긴 意慾은 分명한 것이었다. 그는 喜劇, 悲劇, 短篇小說을 쓰고자 했다. 머리속에 構想은 하지만 獨自의이고 嶄新한 作品을 아직 쓸 수 없었다. 그의 試作이 간직하고 있는 레미니센스에 敏感한 그는, 恍如에 作品을 그만두며 불 태워 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自身 속에서 “偉대한 무엇을 產出하려는 渴할 줄 모르는 갈증을 느끼며, 作品에 依해서 偉大해지고 싶은 甚한 慾望”²³⁾을 느끼고 있었다.

“Le temps me paraissait perdu s’il n’amenait une idée neuve et féconde. Toujours mécontent de celles qui s’offraient à mon esprit, las d’une méditation perpétuelle dans laquelle j’épuisais mes forces, je sentis la nécessité d’entrer dans l’action, et n’hésitant pas à me jeter dans les extrêmes, ainsi que je l’ai fait toute ma vie, j’ai voulu être officier et pressai tellement mon père de me donner cet état, qu’il fit dans le jour même les démarches qu’il fallait faire pour cela.”²⁴⁾

이와같이 軍隊生活의 始作에 關한 Vigny 自身의 說明이 簡略하고 不充分하다 할지라도, 어린 나이에 그가 가졌던 文學에 대한 早熟하고도 野心에 찬 召命意識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理由를 든다면, 누구나 젊은 時節엔 人生에 대한 豊富한 經驗도 없이, 偉大해지고자 하는 慾望을 갖게 마련이며, 어떤 目的의性에 依해서라기 보다는, 單純히 自己省察을 벗어나기 위해 行動으로 뛰어들기 때문이다. 이랬든 그것은 오랫동안 存續시키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極端인 結定일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더구나 慾望이 변하기 쉬운 나이에, 그가 追求하는 偉大性을 다른 方向에서 찾으려고 하였으니, 훗날 그가 行動人을 定義하여 “思想家가 되려나 만 사람”²⁵⁾으로 看做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 年齡때의 躊躇하던 일을 回想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B. 軍隊時節

1814年 3月 1日, 帝政은 무너졌다. 負傷당한 將校의 아들로 태어나, 貴族의인 傲慢이 戰鬪愛와 뒤섞인 武勇談 속에서 자라나, 나폴레옹의 大叙事詩的인 赫赫한 戰攻이 한창일 때, “軍隊의 榮光에 대한 常識을 벗어난 사랑”²⁶⁾에 사로잡힌 후 王政復古와 더불어 軍隊生活이 始作되었다. 父母의 周旋으로 近衛隊의 羨望받는 <Compagnie rouge>의 少尉가 되었다. 그 다음해에, 그의 어머니는 誘惑으로 부터 兒아들을 지키기 위해 <L’Imitation de Jésus Christ>를 주었으며, 天性이 매우 情熱的인 아들을 위해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신의 생각을 적은 <Conseils à mon fils>를 전하며, 이를 集約된 道德律로 삼도록 당부하였다.

이 <Conceils à mon fils>는 語調가 매우 힘차고, 感性보다는 理性에 呼訴하고 있다.

“D’où vient ce désir instable de bonheur qui est la source de toutes actions?...Parce que nous ne

21) J., 1847, p. 1253.

22) J., 1847, p. 1262.

23) J., 1847, p. 1262.

24) J., 1847, pp. 1262-3.

25) J., 1829, p. 890.

26) S. G. M., p. 526.

trouvons dans tous les êtres créés qu'imperfections et que notre âme émanée de la Divinité même... tend sans cesse à retrouver vers son auteur qui est la source de toute perfection."²⁷⁾

또한 自己 아들에게 이미 信仰이 없어진 것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모랄의 必要性을 力說하고 있다.

“Prie Dieu qu'il te donne la foi, mais conforme-toi et pense souvent à la morale sublime que cette religion enseigne,”²⁸⁾

自己 “아들의 敵은 情熱”²⁹⁾임을 잘 알고있는 그의 어머니로서는 情熱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아들의 가슴속에 高貴한 힘, 意志力을 북돋아 주어야 했다.

“On t'a déjà dit: il faut vivre selon la nature, et l'homme n'est heureux qu'en jouissant de ses facultés. Mais cette nature, ou l'être éternel qui l'a créée et qui nous a donné un corps matériel, y a joint aussi une faculté intellectuelle qu'on appelle l'âme; l'un et l'autre sont si intimement unis pendant notre vie qu'ils agissent continuellement l'un sur l'autre. La volonté est et doit être la plus forte.”³⁰⁾

자신의 아들이 모든 危險이 따르고 誘惑이 노리고 있는 現實과 軍隊에 너무도 일찍 던져져, 은근한 不安속에서 未成年의 아들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의 어머니는, 자기들의 出身에 맞는 名譽보다 더 힘있는 手段이 없음을 看過하지 않았다.

“Tu entendra dire à des gens bassement envieux que la noblesse n'est rien, que tous les hommes sont égaux; d'autre, d'un orgueil outré, regretteront le temps où le noble pouvait tuer impunément celui qui avait osé parler avec insolence. La vérité est au milieu de ces exagérations. Devant la loi, tous les hommes sont égaux...mais la noblesse est quelque chose. C'est un titre écrit que le souverain conféra pour des services rendus à l'Etat.”³¹⁾

要컨대, 이 <Conseils à mon fils>의 價置는 Vigny 自身을 위해 그리고 Vigny의 研究를 위해 대단히 큰 것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아들의 性品이 情熱의임을 드러내었고, 意志와 名譽의 高貴한 힘에 呼訴한 어머니의 글은 훗날 Vigny의 그것이 되었다.

Vigny의 軍隊生活은 그가 17歲되던 1814年 7月 6日에 始作되었다. 다음 해 나폴레옹의 취안만 上陸으로, 불과 몇 個月의 訓練을 마친 近衛隊員 Vigny는 루이 18世를 隨行하며 프랑드르 거리를 걸고 있었다. 비속에서 당시 流行하던 <Joconde>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며, 自負와 완벽한 幸福을 느껴보기도 했다.³²⁾ 그러나, 榮光과 戰鬥에의 꿈을 안고 자라온 그는, 진흙탕과 추위, 굶주림과 疾病만을 體驗했다. 그는 베틴에서 捕虜가 되어 아미앵에서 百日天下를 보냈다. 워터루大戰 以後 그가 屬해있던 <Compagnie rouge>는 解散되고, Vigny는 近衛隊 第五聯隊에 少尉로 轉屬되었다. 그 후 베르사이, 벵센느, 꾸르브브와, 루앙, 파리에서 兵營生活을 하였다. 不幸하게도, 베르사이에서 訓練中 다리를 다쳤으니, 이는 苛酷한 軍隊生活의 쓴맛을 처음으로 經驗한 셈이었다. 兵營生活의 單調로움을 克服하려고 그는 文學과 科學工夫를 다시 始作하였다.³³⁾ 1822年 7月에 順位에 依해 中尉가 되었으며, 그해 末 스페인 內亂 鎮壓을 위해 루이18世 政府는 10萬名의 兵力을 派遣키로 하였다. 近衛隊는 出征이 不可하여, Vigny는 大尉로 步兵에 轉屬되었다. 部隊와 함께 스트라스부

27) Robert Eude : A. de Vigny intime, p. 35.

28) Robert Eude : A. de Vigny intime, p. 31.

29) Robert Eude : Ibid. p. 42.

30) Robert Eude : Ibid. p. 42.

31) Robert Eude : Ibid. p. 42.

32) S. G. M., pp. 535-536.

33) S. G. M., p. 533.

르를 떠나 보르도를 경유 스페인에 入國하려던 차에, 그의 部隊는 國境을 守備토록 命令이 내려, 스페인 入國이 不可能하게 되었다. 戰爭이 끝난 후에는 피레네山中의 營에서 兵營生活를 繼續했다.

한편, 베르사이에서 입은 負傷으로 健康이 回復되지 않았다. 담배 연기로 자욱한 軍衛隊의 雰圍氣 때문에 기침을 참을 수 없었으며, 그것을 보고 놀라며 웃어대는 同僚들로 부터 失望을 안고 말았다. 그 때를 다음과 같이 침울하게 述懷하고 있다.

“Ce n’est que lorsqu’un homme est mort qu’on croit à sa maladie dan sun régiment. Après son enterrement, on dit: il paraît qu’il était vraiment malade.”³⁴⁾

또한 한결같은 軍隊生活의 單調로움은 奇蹟과 變化에 대한 그의 慾求를 增大시켰다.

“La vie est triste, monotone, régulière. Les heures sonnées par le tambour sont aussi sombres que lui. L’armée où l’on sert est le moule où l’on jette son caractère, où il se change et se refond pour prendre une forme imprimée pour toujours. L’homme s’efface sous le soldat.”³⁵⁾

그는 戰爭이야말로 各者에게 榮光의 獨創性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大敘事詩와 같은 武勳時代가 每年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Nous n’osions quitter l’épée, dans la crainte que le jour de la démission ne devint la veille d’une campagne.”³⁶⁾

그런데도 不拘하고, “상드말스에서 戰場을 꿈꾸며, 閱兵練習속에서 強烈하지만 無用한 精力을 消耗하며 數年³⁷⁾을 虛送하였다. 하지만 部隊內에는 “옷가지들로 가득찬 배낭을 짊어져, 士兵의 등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弓形의 脊椎를 가진 老將校들³⁸⁾이 많았으니, 그들로 부터 말없는 自己犧牲의 敎訓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見解는 Vigny의 經驗世界를 넓혀주었다. 나이가 幼年期의 그의 생각과는 다른, 또 하나의 世界의 아름다움을 그로 하여금 摸索케 하는 契機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처음에 그는 兵營生活에서 오는 倦怠때문에, 그후로는 趣味로 밤중에 工夫를 繼續하였다.³⁹⁾ 그때의 生活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Le temps de mes services fut pour moi la seconde éducation. c’est la vraie et la seule qui donne à l’âme son élévation et sa forme définitive. Grâce à la réclusion des régiments dans leurs forteresses, ma vie fût celle d’un jeune Bénédictin ou d’un Lévite et l’armée ne fut pour moi qu’un seconde lycée.”⁴⁰⁾

그는 聖經을 暗誦하였으며 가장 긴 行軍 때에도 그와 함께 있었다. 將校인 그는 聖經 가운데서 苛酷한 戰爭描寫에 더욱 마음이 끌렸다. 聖經에서 劍의 正當性을 찾고 있었던 그는, 20년이 지난 後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Je cherchais ainsi à capituler avec les monstreuses résignations de l’obéissance passive, en considérant à quelle source divine elle remontait.”⁴¹⁾

34) J. , 1832, p. 960.

35) S. G. M. pp. 531-2.

36) S. G. M. , p. 527.

37) S. G. M. , p. 527.

38) S. G. M. , p. 533.

39) S. G. M. , p. 527.

40) Mémoires Inédits, p. 65.

41) S. G. M. , p. 564.

聖經 다음으로는 Ballanche의 影響이 컸었다. Vigny는 그에 대한 尊敬을 결코 감추지 않고 있었다.⁴²⁾ Ballanche는 1814年, Antigone를 出版, 그속에서 運命의 問題를 提起하였으며, <Traité du Palingénésie Sociale>章에서 다른 戰爭問題는 <S. G. M.>著者에게 影響을 미쳤다.

한편, 그는 1825年 2月 8日 砲에서 英國人 Bunbury嬢과 結婚하였다. 婦人의 健康이 나빠 子息이 없었다. 病으로 結婚 2年後에는 자기 아파트를 떠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善良하고 溫順하였으나 佛語도 모르고 男便의 工夫에 關心이 없었으며 男便의 作品을 읽었으리라고는 믿이지 않고 있다. 婦人은 男便에게 靈感을 주는 女人, 精神的인 持柱도 伴侶도 아닌 가장 거추장스러운 妨害物이었다. 이는 Vigny가 家庭에서 찾을 수 없었던 마음과 思想의 親交를 밖에서 求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이것이 파란만장하고 不幸스러웠던 Marie Dorval과의 關係의 原因일 것이다.

家庭의인 幸福의 期待가 挫折된 그는 文人이 되려는 野望속에서도 失望만 안게 되었다. 1819年 부터 翌年까지 浪漫派形成運動에 參與하였다. 오래 전부터 알고있던 Emile Doschamps에 依해 Vitor Hugo와 사귀게 되어, Hugo가 結婚할 때, 첫번째의 證人이기도 했다. 近衛隊의 젊은 將校는 <Conservateur littéraire>誌의 共同編輯人이 되었다. Hugo와 Vigny, 前者는 오드를, 後者는 詩를 各各 發表하였다. 그들의 새로운 傾向에 敏感한 批評家들은 이 둘의 이름을 같은 記事에서 다루었다. Vigny와 Hugo, 이 두 作家는 浪漫主義文學의 두 希望이었다. 그들 사이의 比重은 同等하였고, 그들의 作品은 相應하였으니, 1824년에는 <Eloa>와 <les Nouvelles Odes>, 1826년에는 <Bug-Jargal>과 <Cinq-Mars>가 各各 發表되었다. 그러나 1827년에는 均衡이 깨지고, 계속해서 <Cromwel>에서 <Notre-Dame de Paris>까지 一聯의 名聲을 얻은 作品들이 Hugo를 無敵의 一人者로 만들었다. 浪漫派의 젊은 作家들은 Hugo를 그들의 領首로 맞이하였으니, Vigny로서는 그 役割이 은근히 부러워했을 법하다. 그의 失望은 작지 않았다.

그가 砲에서 兵營生活을 하고 있을때 軍隊를 脱出하고 싶은 拒逆할 수 없는 慾望을 느끼며, 오직 자기 이름만이 屬해 있는 軍隊로부터 名譽롭게 退陣할 수 있는 興件이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24年 12월에 休暇를 얻은 그는, 不治로 診斷된 慢性肺炎으로 1827년에 退役했다. 결국 11年을 制服 속에서 보냈으나, 休暇를 全部 計算하면 7年을 보낸 셈이다.

끝으로 Vigny에 있어 軍隊의 意味는 너무 깊이 浸透되어, 그가 詩作이나 演劇活動을 할때 그의 着想을 도왔음을 看過할 수 없다. 1829년에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Lorsqu’un siècle est en marche guidé par une idée, il est semblable à une armée marchant dans le désert. Malheur aux trainards! Rester en arrière, c’est mourir.”⁴³⁾

그리고 1835年 <Chatterton>을 처음 公演한 後 아직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Je regardais le public, comme on regarde un ennemi dans un duel, les coups que je portais au coeur, j’en voyais l’impression, ceux que je portais à la tête, je les voyais aussi.”⁴⁴⁾

지금까지 考察한 바와 같이 赫赫한 榮光을 안기에는 Vigny의 軍隊經歷은 너무도 짧지만, 이런 時節의 거의 全部를 武勇談속에서 보냈고, 天性이 理想主義의이며 騎士道的인 想像力과 꿈많은 Vigny에 있어서, 軍隊라는 職業이 그의 教育, 性格 및 作品에 미치는 影響은 至大한 것이었다.

42) J. 1831, 1838, 1844.

43) J., p. 889.

44) J., p. 1023.

C. <Servitude> 執筆 當時의 Vigny.

Vigny가 <S. G. M.>를 執筆한 時期는 退役後 그의 軍隊生活을 整理하는 하나의 回想의 章이다. 어린時節의 꿈과 實際적인 現實과의 너무도 큰 相拒를 어떻게 調整하고, 나아가 그의 軍隊觀은 어떤 것인지를 考察하는 일이 남아있다.

軍인이 되기 위해 數學家가 되었고, 일단 軍인이 된 다음에는 權威와 行動을 重要視하였다. 그의 눈에 비친 權威란, 下級者로 하여금 Séidisme이라는 理性을 잃은 狂信的인 사랑을 指揮者에게 갖도록 하는, 언제나 服從만을 強要하는 것이었다. 또한 服從은 兵士들의 가슴속에 自己犠牲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⁴⁵⁾ 그리고 行動은 肉體的인 活動으로 루이18世의 退却을 護衛할 때는 즐겁기도 하고⁴⁶⁾ 아미앵에서 파리까지 行軍도중 눈에 띄는 草家마다 우유를 求하며, 말없이 빗속을 걸을 때는 苦痛스럽기도 했다.⁴⁷⁾ 이는 特히 戰鬪活動, 戰鬪의 必要性, 危險과 榮光에 대한 꿈 때문이었다고 보여진다.

이와같이 權威와 行動은 그를 사로잡았다가 失望시키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觀點에서 權威問題를 探究하였다. 權威는 神聖한 것인가고 自問하며 Joseph de Maistre 理論을 檢討한다.⁴⁸⁾ 軍隊는 한 領首에게 屈服해야 하느냐고 물으며, 狂信主義를 批判한다.⁴⁹⁾ 나아가, 騷擾時에는 軍隊를 死刑執行囚로 만드는 市民階級에게 軍隊는 항상 服從해야 되는 것이냐고 하면서 議決能力이 있는 軍隊를 計劃하였다.⁵⁰⁾ 哲學的인 思想을 가진 Vigny는 權威問題에 사로잡힌 후, 權威에다 確實한 理論的 根據를 提示하고자 努力했다. “모든 權力은 하느님으로 부터 나온다. 그만이 엄청난 所願을 하느님에게 進言할 수 있는 一種의 모세를 各個 軍司官에서 보는 것 같았다.”⁵¹⁾고 하며, 被動的 服從에 대한 그의 態度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Je cherchais ainsi à capituler avec les monstreuses résignations de l’obéissance passive, en considérant à quelle source divine elle remontait, et comme tout ordre social semblait appuyé sur l’obéissance; mais il me fallut bien des raisonnements et des paradoxes pour parvenir à lui faire prendre quelque place dans mon âme. J’aimais fort à l’infliger, mais peu à subir; je la trouvais admirablement sage sous mes pieds, mais absurde sur ma tête...J’étais un Lévite de seize ans.”⁵²⁾

이와같이 不過 16歲에 그의 神政思想을 支持할 수 있는 論法과 逆說을 必要로 하고 있었다. 이는 그가 權威의 人間이었다면 또한 自由人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敵은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La Fontaine의 詩句를 적고서 Docteur Noir는 “나는 어떠한 權威도 참을 수 없다”고 덧붙이니, 眞理가 빼앗아간 내가 아닌, 나는 한갓 田園지기의 無辜한 힘에 지나지 않는다.⁵³⁾고 Stello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Vigny가 神政思想을 警戒하면서 부터 Voltaire에 接近하였다. Voltaire는 後日 séidisme이라고 부르는 狂信主義의 敵이었다.⁵⁴⁾ 1829年 그는 命名도 않은 채, 한 우두머리 앞에서의 個人의 全的인 自己拋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45) S. G. M., p. 610.

46) S. G. M., p. 535.

47) J., 1832, p. 960.

48) S. G. M., p. 565.

49) S. G. M., p. 627.

50) S. G. M., p. 673.

51) S. G. M., p. 564.

52) S. G. M., p. 564.

53) Stello, p. 745.

54) J., 1834, p. 1003.

“Exempt de tout fanatisme je n’ai point d’idole... L’homme est si faible que lorsqu’un de ses semblables se présente disant: ‘Je peux tout’, comme Bonaparte, ou ‘Je sais tout’, comme Manomet, il est vainqueur et a déjà à moitié réussi. De là le succès de tant d’aventuriers.”⁵⁵⁾

위의 引用은 신기하게도 보나파르트와 마호메트, 軍事的인 狂信主義와 宗教的인 狂信主義를 比較시키고 있다. 1829年 부터 始作한 狂信主義에 대한 批判을 <Canne de Jonc>에서 다시 하고 있다.

“Pour le capitaine Renaud, c’est un combat que j’ai voulu livrer à l’esprit de Séide, qui nous saisit trop aisément en France. Il n’y a pas un ambitieux égoïste qui ne trouve, dans la foule, des esclaves presque fous d’obéissance aveugle. Il faut tâcher de garantir la nation des penchants qui l’ont si souvent égarée, et celui-là renferme pour elle bien des dangers. Ce sont des mauvaises amours qui l’ont prise bien souvent, surtout depuis 1789.”⁵⁶⁾

狂信主義의 結果는 苛酷한 것이어서, 祖國, 家族, 自由에 대한 사랑과 같은 가장 自然스러운 感情마저 깃밟고 만다. Renaud는 프랑스도 자기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폴레옹만을 사랑하였다.⁵⁷⁾ 이에 대해, 自由主義가 된 Vigny는 Renaud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代辯케 하였다.

“O rêve d’autorité et d’esclavage! Faux enthousiasme! Poison subtil, quel antidote pourra-t-on jamais trouver contre vous.”⁵⁸⁾

Renaud가 狂信主義의 被害를 하나하나 列擧할 때, 그는 分明히 Vigny의 代辯人이다. 나폴레옹과 戰爭에 대한 사랑으로 눈이 먼 Renaud大尉는 “나는 捕虜들을 싫어한다.⁵⁹⁾는 皇帝의 殘酷한 말을 듣고서, 또 戰爭의 苛酷함을 보여주는 14歲된 러시아 少年을 殺害한 뒤에⁶⁰⁾, 그의 눈이 뜨었다. 感性和 想像力의 所有者 Vigny는 Séidisme에 빠졌으나, 또한 理性和 每事를 自由로히 檢討하는 그 옛기에 séidisme에서 治癒되었다고 본다.

일단 séidisme에서 治癒되고 思想이 自由롭게 되자, 그는 被動的 服從이라는 가장 可恐스러운 問題를 探索하려 했다. 이 問題에 關係서는 La Menais의 影響을 받았다. La Menais의 <Paroles d’un croyant>은 1834년에, <S. G. M.>는 1835년에 發表되었으나, 問題는 簡單하지 않다. 왜냐하면 <S. G. M.>의 세 이야기 가운데 <Le Cachet rouge>와 <La Veillée de Vincenne>는 <Paroles d’un Croyant>보다 먼저 쓴 것이다. 위의 두 中篇은 1833年 3月 1日, <La Revue des Deux Mondes>誌에 <Paroles d’un croyant>은 1834年 5月 3日 <Journal de la Librairie>誌에 各各 發表되었고, <Cachet rouge> 앞에 나오는 三個章과 <La Veillée de Vincenne> 앞에 있는 責任에 關한 章은 <Revue des Deux Mondes>誌에 실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 든 四個章은 세번째의 <Canne de Jonc>과 함께 <Paroles d’un croyant>이 發表된 다음인 1835년에 쓴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S. G. M.>의 처음 두 中篇과 세번째 中篇의 差異는 La Menais의 影響을 立證하고 있다. La Menais처럼 騷擾時의 被動的인 服從을 考察하였다. 그러나 <Paroles d’un croyant>을 읽은 後 被動的인 服從에 疑問을 提起하기 始作했다. F. Baldensperger가 <S. G. M.>原稿에서 發見한 1832年의 프랜에 依하면 이를 確實케 하고 있다.⁶¹⁾ 兵士가 死刑執行囚임을 首肯하면서⁶²⁾ <le Cachet ro-

55) J., p. 898.

56) Lettre de 1847 à Louise Lachaud

57) S. G. M., p. 619.

58) S. G. M., p. 619.

59) S. G. M., p. 657.

60) S. G. M., p. 662.

61) S. G. M. Edition Garnier, 1965, p. 228.

62) Chap. 17 du plan 1832.

uge>를 쓴 것은, 不當한 命令에 대한 한 將校의 屈從속에서 自己犠牲의 산 證據를 보았기 때문이며, Vigny 自身도 自己犠牲을 하게 되었다.⁶³⁾ 責任問題를 考慮하지 않고 쓴 <La Veillée de Vincenne>는 平和時 兵士가 名譽를 지키려는 단순한 慎重性을 보여주고 있다.⁶⁴⁾ 그는 民兵(Citoyen armée)이라는 古代概念보다는 戰爭이 사라질 時期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1832년의 프랜은 아주 組織的이었다.

“On a dit que les armées mercenaires se changeraient en armées nationales, je pense au contraire que le soldat est la dernière transformation du guerrier et que l’homme de guerre cessera d’exister, mais dans un avenir très lointain.”⁶⁵⁾

또한 그의 <Journal>도 위의 主張을 確認하고 있다. 1830年 8月 11日 Vigny는 騷擾中에 “그의 義務를 高貴하게, 그러나 이질수 없어서”⁶⁶⁾ 遂行한 近衛隊를 讚揚하고 있다. 한편 그는 한 兵士의 屈從과 殉教를 背反과 報償에 가득찬 한 辯護士의 政治經歷과 對照시키는 小説을 쓰기로 決心하였다.⁶⁷⁾ 그러므로 Vigny가 1833년까지 平和時 兵士의 被動的服從을 檢討하였다면, 이는 不服從을 勸獎하려는 것이 아니라, 良心을 숨기게 하는 自己犠牲에 한층의 潤氣를 더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835년의 그의 생각 및 <la Canne de Jonc>에서는 從來와 같지 않다. “俸給을 받는者, 即 兵士는 古代戰士의 마지막 變形”⁶⁸⁾으로 보았으나, “軍隊와 國家(les Armées et la Nation)가 同一하게 될 時機를 너무 성급하게 기다릴 必要가 있다.”⁶⁹⁾고 하면서 1835년에는 그가 다시 民兵이 될 수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權力은 언제나 “끊임없이 威脅받는 鬪爭속에서 劍闘士들로 護衛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必要한 생각이 早晚間 그렇게 되듯이 나 自身의 생각이 언젠가는 빛을 보아 具體化되기를 또한 바란 것이다.”⁷⁰⁾고 하면서 그의 두 意見을 調整하려고 까지 했다. 即 國軍(l’Armée nationale) 다음으로 議決能力이 있는 軍隊(l’armée délibérante)의 問題이다. “軍人에게 議決能力을 許可한 事項을 規定해야 되며, 어느 限定된 階級까지는 將校에게 選舉權이 주어져야 된다”⁷¹⁾고 主張하며, Vigny는 服從을 拒否하고 나섰다. 그러므로 <Paroles d’un croyant>이 發表된 후, 從前에는 可能하지도 所望스럽지도 않던 “國軍”과 “議決能力이 있는 軍隊”가 所望스럽고 可能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1835年 6月 24日에 된 <la Vie et la Mort d’un soldat>와는 完全히 다르다.⁷²⁾ 1830年에 그는 한 將校의 忠誠과 한 辯護士의 背反이라는 對照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1835년에는 “理想의인 뛰어난 現役將校의 性格”⁷³⁾을 描寫기로 했다. Vigny는 神聖한 權威에 대한 畏敬에서 出發하여 反抗을 理解하고 狂信主義와 被動的服從을 叱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狂信主義는 斷念하였으나, 權威와 被動的服從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權威는 神聖한 것이다. 여러가지 制約에도 不拘하고 모든 面에서 權威의 正當性을 維持하며, 神의 아들인 天才의 權威를 最上位에 두었다. 이렇게하여 그의 理性과 感性사이에 平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uge)를 쓴 것은, 不當한 命令에 대한 한 將校의 屈從속에서 自己犧牲의 實證據를 보았기 때문이며, Vigny 自身도 自己犧牲을 하게 되었다.⁶³⁾ 責任問題를 考慮하지 않고 쓴 <La Veillée de Vincenne)는 平和時 兵士가 名譽를 지키려는 단순한 慎重性을 보여주고 있다.⁶⁴⁾ 그는 民兵(Citoyen armée)이라는 古代概念보다는 戰爭이 사라질 時期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1832년의 프랜은 아주 組織的이다.

“On a dit que les armées mercenaires se changeraient en armées nationales, je pense au contraire que le soldat est la dernière transformation du guerrier et que l’homme de guerre cessera d’exister, mais dans un avenir très lointain.”⁶⁵⁾

또한 그의 <Journal>도 위의 主張을 確認하고 있다. 1830年 8月 11日 Vigny는 騷擾中에 “그의 義務를 高貴하게, 그러나 이룰수 없어서”⁶⁶⁾ 遂行한 近衛隊를 讚揚하고 있다. 한편 그는 한 兵士의 屈從과 殉教를 背反과 報償에 가득한 한 辯護士의 政治經歷과 對照시키는 小説을 쓰기로 決心하였다.⁶⁷⁾ 그러므로 Vigny가 1833년까지 平和時 兵士의 被動的服從을 檢討하였다면, 이는 不服從을 勸獎하려는 것이 아니라, 良心을 숨기게 하는 自己犧牲에 한층의 潤氣를 더해주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1835년의 그의 생각 및 <la Canne de Jonc>에서는 從來와 같지 않다. “俸給을 받는者, 即 兵士는 古代戰士의 마지막 變形”⁶⁸⁾으로 보았으나, “軍隊와 國家(les Armées et la Nation)가 同一하게 될 時期를 너무 성급하게 기다릴 必要가 없다.”⁶⁹⁾고 하면서 1835년에는 그가 다시 民兵이 될 수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權力은 언제나 “끊임없이 威脅받는 鬭爭속에서 劍闘士들로 護衛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必要한 생각이 早晚間 그렇게 되듯이 나 自身의 생각이 언젠가는 빛을 보아 具體化되기를 또한 바란 것이다.”⁷⁰⁾고 하면서 그의 두 意見을 調整하려고 까지 했다. 即 國軍(l’Armée nationale) 다음으로 議決能力이 있는 軍隊(l’armée délabrante)의 問題이다. “軍人에게 議決能力을 許可할 事項을 規定해야 되며, 어느 限定된 階級까지는 將校에게 選舉權이 주어져야 된다”⁷¹⁾고 主張하며, Vigny는 服從을 拒否하고 나섰다. 그러므로 <Paroles d’un croyant>이 發表된 후, 從前에는 可能하지도 所望스럽지도 않던 “國軍”과 “議決能力이 있는 軍隊”가 所望스럽고 可能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1835年 6月 24日에 된 <la Vie et la Mort d’un soldat>와는 完全히 다르다.⁷²⁾ 1830年에 그는 한 將校의 忠誠과 한 辯護士의 背反이라는 對照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1835년에는 “理想의인 뛰어난 現役將校의 性格”⁷³⁾을 描寫키로 했다. Vigny는 神聖한 權威에 대한 畏敬에서 出發하여 反抗을 理解하고 狂信主義와 被動的服從을 叱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狂信主義는 斷念하였으나, 權威와 被動的服從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權威는 神聖한 것이다. 여러가지 制約에도 不拘하고 모든 面에서 權威의 正當性을 維持하며, 神의 아들인 天才의 權威를 最上位에 두었다. 이렇게하여 그의 理性과 感性사이에 平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63) S. G. M., pp. 560—561.

64) S. G. M., p. 569.

65) Chapitre 13.

66) J., p. 617.

67) J., 1829, p. 894.

68) Plan de 1832.

69) S. G. M., p. 522.

70) S. G. M., p. 566.

71) S. G. M., p. 563.

72) J., p. 999.

73) J., p. 1029.

하지만 狂信主義의 治癒는 結果的으로 不服從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狂信主義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을 Renaud大尉는 義務感에 의해 繼續하고 있다. 더구나 Vigny는 平和時의 被動的인 服從을 檢討하며 “敵 앞에서는 法이 언제나 苛酷할 수 없는 것이다.”⁷⁴⁾라고 宣言하고 있다.

결국 La Menais의 影響이 큰 것 만큼 一時的이 되었다. 같은 해에 國軍과 議決能力이 있는 軍隊라는 그 훌륭한 理論이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말았다. <La Canne de Jonc>의 結論에서는 더이상 國軍問題를 다루지 않고, 反對로 戰爭이 存續하는 限 “劍鬪士”가 存續하게 될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다.⁷⁵⁾ 그는 責任에 關한 章에서 軍隊의 反抗問題를 言及하여 Renaud로 하여금 결코 躊躇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Renaud는 바로 行動으로 뛰어든다. 未出版된 記錄에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議決能力이 있는 軍隊를 否認하고 있다.

“Jamais l’armée ne doit être délibérante, mais J’ai voulu la consoler d’être aveugle et muette, en lui montrant quelle peut être la grandeur de sa résignation et de son abnégation.”⁷⁶⁾

<La Canne de Jonc>에서 Vigny는 兵士들에게 어떠한 議決하는 權限도 主張하지 않으며, 兵士들에게 屈從과 併呑된 偉大性을 提示하며 激勵와 支持를 보내고 있다. Renaud大尉의 마음이 戰爭愛, 보나팔트에 대한 사랑같은 모든 情熱에서 解放되었을 때, 오직 義務에만 服從하였 때, 그는 眞正한 自由人이 되었다.

Ⅲ. Vigny의 모랄

A. 運命의 勝者, Vigny

누구보다 페시미즘이 支配的인 Vigny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틸미즘이 全無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두 傾向이 서로 얽히어 있었다. 그런데 페시미즘이 점점 줄어들면서, 유틸미즘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Vigny의 心狀의 變化過程을 把握키 위해 그의 運命과의 內的鬪爭을 考察코져 한다.

그의 <Journal>에 나타난 最初의 생각은 運命에 關한 것이었다.⁷⁷⁾ 그러나 결코 運命(Destinée)의 定義를 내리지 않고, 이에 關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나중에 가서야 貧富 貴賤과 같은 出生이라는 宿命을 나타내고 있다. 1831년에 “財産이 없이 태어난다는 것은 가장 큰 罪惡이다.”⁷⁸⁾고 하더니, 다음 해에는 “나의 아버지는 적은 財産으로 나를 키웠으니, 貴族으로서 財産이 없는 경우 처럼 不幸한 일은 없다.”⁷⁹⁾고 恨歎하고 있다. 또 <Canne de Jonc>에서는 나폴레옹의 입을 통해 出生이 全部다.⁸⁰⁾라고 強調하고 있다. 그의 悲劇은 또한 貴族이 社會에서 追放당하는 時期에 貴族의 身分으로 태어나게 된 것에 있다. 學校에서는 그의 이름에 de가 들어있기 때문에 學生들로 부터 두들겨 맞으며, 自己 自身을 詛呪받은 族屬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로인해 그의 性格이 침울하게 되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고 告白하고 있다.⁸¹⁾ 결국 그는 下層階級이 中産階級이 되는 社會에서 賤民(paria)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出生 다음으로는 家庭的인 不運이 따랐다. 그는 그의 어머니와 婦人을 病床에서 看護해야 했기에

74) S. G. M., p. 563.

75) S. G. M., p. 673.

76) S. G. M. Edition Baldensperger p. 283.

77) J., p. 880.

78) J., p. 939.

79) J., p. 959.

80) S. G. M., p. 635.

81) J., 1847, p. 1260.

“一切로 부터의 獨立이 나의 所望이 있으나, 從屬이 나의 運命이었다.”⁸²⁾고 그의 日記에 쓰고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Vigny는 個人的인 宿命의 重大性을 誇張하고 있다. 天才(모세를 가르킴)를 遊離시킨 하느님에 대해 非難을 퍼부은 다음, 詩가 必要로 하는 바를 調達해줄 수 없는 社會에서 가난한 詩人으로 自身을 태어나게 한 運命에 依해 自殺할 수 밖에 없는 Chatterton을 描寫했다. 그의 日記에서도 사람들은 “왜 자기가 監獄에 갇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不幸한 罪囚들”⁸³⁾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Journal>에 나타난 運命과의 쓰라린 鬪爭의 描寫를 檢討해 보자.

“Dieu a jeté - c'est ma croyance-la terre au milieu de l'air et de même l'homme au milieu de la destinée. La destinée l'enveloppe et l'emporte vers le but toujours voilé. Le vulgaire est entraîné, les grands caractères sont ceux qui luttent.”⁸⁴⁾

우선 人間은 鬪爭할 수 있다. 가장 強한 者는 最後까지 鬪爭한다. 人間은 결국 敗北하거나 죽기 마련이지만 싸울 權利와 才能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1834年 그의 日記에는 “運命은 神의 攝理의 道具이기 때문에, 이 두개의 힘은 같은 것이다.”⁸⁵⁾고 말하고 있다. 萬一 우리가 항상 베일에 쌓인 目標을 向해 끌려간다고 볼 때, 그것이 神의 攝理에 依한 目標라면 無關한 일이며, 아무리 베일에 쌓여있다 하더라도, 人類가 物質에 대한 精神의 勝利를 向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수 있는 것이다. 創造는 分明히 “完全을 向해 힘겹게”⁸⁶⁾ 나아가고 있으며, 여하튼 前進하고 있다. 또한 “神은 얼마나 善良하며, 얼마나 敬歎할만한 감옥지기인가.”⁸⁷⁾하는 Vigny의 絶望은 感謝와 神秘에 찬 諦念의 形態를 때로는 取하고 있다.

그러므로 Vigny의 essimism은 optimism을 內包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神의 攝理의 地位를 마련할 수 있었다. 神의 攝理는 選民의 使命에 依해 發現됨을 Vigny는 결코 疑心치 않았으며 모세는 하나의 選民이었고, Vigny는 또 하나의 選民이었다.

이제 運命의 理論을 理解하기 위하여 使命의 理論을 檢討해보면, 그는 使命도 運命과 마찬가지로 定義를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使命의 特別한 位置를 運命의 一般的인 理論속에서 決定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使命은 運命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 안의 것이기도 하고, 밖의 것이기도 하다. 神의 被造物인 人間은 精力과 強靱한 意志로 自己의 使命을 成就할 수 있기 때문에, 使命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의 使命을 完遂하는 것은 特別히 우리에게 달려 있으나, 使命 그 自体는 결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詩人과 Chatterton에 關하여 Vigny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On dirait qu'il assiste en étranger à ce qui se passe en lui-même, tant cela est imprévu et céleste.”⁸⁸⁾

運命과 싸우기 위하여서는, 우선 強해야 한다. 그러면 人間이 運命에 依해 감춰진 目的을 向해 끌려가고 있는 이 世上에서, 強者의 位置는 무엇인가? 強者는 보다 빨리 나아가기 위해, 運命을 앞지르기 위해 鬪爭한다.⁸⁹⁾고 하며 처음에는 “鬪爭한다”는 말을 使用한다. 그다음에는 “앞지른다”는 말을 並用하고 있다. 1829년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Tragédie. -J'y veux présenter toujours la destinée et l'homme, tels que je les conçois. -L'une l'emportant comme la mer, et l'autre grand parce qu'il la devance, ou grand parce qu'il lui résiste.”⁹⁰⁾

82) J., 1835, p. 1022

83) J., 1833, p. 993.

84) J., 1824, p. 880.

85) J., p. 1014.

86) J., 1835, p. 1025.

87) J., 1832, p. 949.

88) Chatterton, p. 765, t. I.

89) J., 1824 p. 880.

90) J., p. 890.

바다처럼, 우리를 실어가는 운명의 비유와, 마치 大路처럼 우리 앞에 길게 펼쳐진 운명의 비유, 그가 자주 사용하는 이 두 비유는 拒逆할 수 없는 흐름을 뜻하거나, 이미 주어진 방향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운명의 理論은 神의 攝理의 理論이다. 人間은 神의 攝理와 對抗해 싸우지 않는다. 다만 人間은 聖業을 보다 빨리 完遂하기 위해 自己人生의 妨害物과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 理論은 Vigny가 人間存在의 宿命에 대해 重要性을 어느 정도로 두느냐에 따라 변하고 있다. 여기서 Vigny가 宿命의 重要性을 誇張할 때, 그의 初期의 pessimism이 나타나며, 그가 宿命을 보다 慎重하게 다룰 때 그의 漸進의인 Optimism이 나오게 된다.

〈S. G. M.〉와 더불어 Chatterton의 絶望의인 哲學은 보다 信賴에 차있다. Chatterton은 自殺을 擇하고 말지만, 〈S. G. M.〉에 나오는 Renaud 大尉는 自己의 運命을 甘受하고, 外的인 事件에 抗拒하지 않으며, 自己 마음 속에서 séidisme 이라는 不吉한 情熱을 뿌리뽑은 Vigny의 最初의 人物이다.

그후 Vigny는 自己의 人間條件에 反抗하는 Chatterton을 더 이상 讀者에게 提示하지 않는다. 〈Bouteille à la mer〉의 詩人은 讀者로 하여금 Chatterton을 잊도록 命令하고 있다.⁹¹⁾ 人間은 宿命을 받아들이고, 宿命이 使命의 完遂를 妨害할 때만 對抗할 일이다. 이와같이 〈S. G. M.〉가 發表된 1835年 부터 宿命에 對한 反抗이라는 Vigny의 pessimism의 主根源이 枯竭된다.

宿命이 苛酷해서 우리의 課業을 보다 힘들게 한다면, 이는 우리의 精力을 보다 더 發揮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지는 것이다. Moïse, Chatterton과 같은 初期의 主人公들은 지쳐있으나, Renaud 大尉는 自体内에서 狂信主義를 除去한 後, 나폴레옹의 榮光에도 屈服하지 않고, 步兵部隊의 침울한 隊列에 끼어 오직 軍人으로서의 義務와 社會的인 使命을 다한다. “알려지지 않은 그의 生涯만큼이나 아름다운 内面的 世界를 간직하고 있다.”⁹²⁾ Renaud 大尉의 性格은 다음과 같은 無限한 激動과 끊임없는 試鍊속에서 形成되었다.

“Chaque vague de la mer ajoute un voile blanchâtre aux beautés d'une perle, chaque flocon d'écume qui se balance sur elle lui laisse une teinte mystérieuse à demie dorée, à demie transparente, où l'on peut simplement deviner un rayon intérieur qui part de son coeur; c'était tout à fait ainsi que s'était formé ce caractère dans de vastes bouleversements et au fond des plus sombres et perpétuelles épreuves.”⁹³⁾

그리하여 Vigny는 運命과의 鬪爭, 換言하면, 우리의 使命의 妨害物에 대한 鬪爭을, 그 후로는 어떤 使命이든간에 이를 詛呪하지 않고 受諾하며, 이 鬪爭을 勝利로 이끌어감을 보여주고 있다. 1840년에 그는 運命을 항상 克服해 왔음을 다음과 같이 自負하고 있다.

“La partie d'échecs que j'ai jouée contre la destinée toute la vie, je l'ai gagnée jusqu'ici. Je lui ai arraché ma mère deux fois, elle devait mourir, j'ai attendu mes droits sans daigner me plaindre, j'ai souffert en silence, j'ai travaillé sans dégrader ma pensée et je n'ai fait que des oeuvres d'art...”⁹⁴⁾

B, Vigny의 宗教, 名譽

어려서 부터 名譽의 高貴한 힘에 呼訴한 어머니의 至大한 影響을 받고 자라난 Vigny는, 1826年

91) p. 157, t. I.

92) S. G. M., p. 664.

93) S. G. M., p. 664.

94) J., p. 1141.

부터 名譽를 考察하고 있었다. 그가 追求해 오던 하나의 原則을 自己内部에서 發見하였음을, 오랫동안 發表를 躊躇하다가 1835년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J’ai cru apercevoir sur cette sombre mer un point qui m’a paru solide. Je l’ai vu d’abord avec incertitude, et, dans le premier moment, je n’y ai pas cru. J’ai craint de l’examiner, et j’ai longtemps détourné mes yeux. Ensuite, parce que j’étais tourmenté du souvenir de cette première vue, je suis revenu malgré moi à ce point visible, mais incertain. Je l’ai approché, j’en ai fait le tour, j’ai vu sous lui et au-dessus de lui, j’y ai posé la main, je l’ai trouvé assez fort pour servir d’appui dans la tourmente, et j’ai été rassuré.”⁹⁵⁾

차차 이렇게 檢討해 나가면서, “새로운 信仰이나 새로 만들어진 崇排”⁹⁶⁾를 追求한다는 것이 얼마나 無用한 일임을 느끼고, Vigny는 커다란 慰安을 얻게 된다. 또한 “名譽는 時間과 場所를 超越하며, 諸般宗教와도 無關한 우리와 함께 태어난 感情”⁹⁷⁾이라고 했다. 名譽는 하나의 事實이며, 또한 하나의 情熱이다. “名譽는 모든 偉大한 發展을 可能케 하며, 天才의 發展을 可能케 한다.”⁹⁸⁾고 보았다.

七月王政初에는 “名譽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基督教 信仰과 代置할 수 있을 만큼 強하다.”⁹⁹⁾고 생각했다. 또한 名譽는 未開人, 現代人, 이런애들에게도 存在하며, 8月 10日 Tuileries 公園을 탈취한 一般市民에게, 軍인에게도 있다고 보았다.¹⁰⁰⁾ 七月革命期間中 近衛隊의 두 將校의 實例를 들이 보자.

“Un lieutenant au 6e de la Garde, ayant reçu l’ordre de faire feu, a refusé parce que la rue était pleine de femmes et d’enfants. Le colonel retière l’ordre de faire feu, et le menace de le faire arrêter, il prend un pistolet et se brûle la cervelle. Le Motheux, capitaine au premier régiment, avait envoyé sa démission le jour des ordonnances folles...Le soir, on se bat; il va trouver son colonel et le prie de regarder sa démission comme non avenue...; on lui crie de se rendre, il refuse et est tué.”¹⁰¹⁾

名譽는 오직 그 自体内에서, 오직 스스로 힘을 發見한다. 오늘날 信仰은 弱하나 人間은 強하다. 人間은 무엇에 依持할 바를 몰라 허리를 조이고 自己自身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결국 人間은 自身속에는 名譽라는 힘을 發見하고 名譽에나 自身을 맡기고 만다는 것이다.¹⁰²⁾ 信仰과 期待가 人間の 外部로 물러나고, 그 中央에 自我意識이 確固한 人間이 자리잡게 된다.

“一切의 低俗한 두려움, 卑屈한 삶과 죽음, 아침, 거짓말”¹⁰³⁾을 막는 社會的인 德性인 名譽는, 다음과 같이 一切의 期待와 形而上學的인 好奇心을 막는 德性이라고 보았다.

“Roman moderne—l’homme d’honneur... L’honneur le défend de tous les crimes et de toutes les bassesses: c’est sa religion. Le christianisme est mort, dans son coeur. A sa mort, il regarde la

95) S. G. M., p. 675.

96) S. G. M., p. 675.

97) J., 1834.

98) J., 1834.

99) J., 1832, p. 942.

100) J., 1834.

101) J., 1830, p. 916.

102) J., 1834.

103) J., 1834.

croix avec respect, accomplit tous ses devoirs de chrétien comme une formule et meurt en silence. ”¹⁰⁴⁾

하여튼 “象徴도 偶像도 儀式도 없는”¹⁰⁵⁾ Vigny의 名譽라는 宗教는 理性에 秋毫도 讓步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 더 合理主義를 固守하고 있다. 그의 宗教는 어떤 超自然的인 啓示에 依한 것도 아니며, 우리들 속에 그 原則을 갖고 있다.

“Tandis que toutes les vertus semblent descendre du ciel pour nous donner la main et nous élever, celle-ci paraît venir de nous-même et tendre à monter jusqu’au ciel. —C’est une vertu tout humaine que l’on peut croire née de la terre, sans palme céleste après la mort; c’est la vertu de la vie. ”¹⁰⁶⁾

그의 “名譽”는 아주 人間的인 것 하나, 說明할 수 없는 하나의 神秘스러운 힘을 自体內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名譽”는 하나의 宗教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Vigny는 또다시 名譽를 定義하려고 몇가지 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名譽는 良心이며, 그것도 高揚된 良心이다.”¹⁰⁷⁾는 定義는 內面을 꿰뚫었으나, 外觀을 等閑히 하고 있다. 名譽는 “自我의 尊重이며, 人生의 아름다움을 尊重하는 것”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C’est le respect de soi-même et de sa beauté de sa vie porté jusqu’à la plus pure élévation et jusqu’à la passion la plus ardente. ”¹⁰⁸⁾

위의 壓縮된 文章에는 우리가 名譽라고 생각하는 모든 要素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不足해서 인지 名譽는 “男兒다운 慎重性”이라고 定義를 내린다.

“L’Honneur, c’est la pudeur virile. ”¹⁰⁹⁾

이것은 그의 가장 決定的인 表現인 것처럼 보이나, 이처럼 날카롭고 深奧한 表現도 Vigny의 名譽에 대한 最終的인 表現은 아니었다. <S. G. M.>가 發表되던 1835年 그의 <Journal>에서 名譽는 義務의 詩라는 또 다른 表現을 찾을 수 있다.

“L’honneur, c’est la poésie du devoir. ”¹¹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La religion de l’honneur”는 單純한 <Canne de Jonc>의 結論이 아닌, <S. G. M>全體의 結論이며, 1835년까지 Vigny 思想의 集約이라고 본다. 또한 이것은 그를 한 줍 부끄러움이 없는 人間다운 人間으로 만들고 지켜준, Vigny의 말 그대로 하나의 “宗教”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104) J., 1834, p. 1011.

105) S. G. M., p. 675.

106) S. G. M., p. 675.

107) S. G. M., p. 676.

108) S. G. M., p. 676.

109) S. G. M., p. 676.

110) J., p. 1021.

111) S. G. M., p. 521 (écrit an 1835).

112) S. G. M., p. 610 (écrit an 1835).

113) A. de Vigny, sa pensée et son art pp. 83—84.

114) La Maison du Berger.

IV. 結 言

以上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帝政下의 赫赫한 戰攻에서 Vigny가 간직해 온 꿈과, 榮光이란 찾아볼 수 없었던 平和時 兵營生活의 實際 사이에는 相距가 너무도 컸지만,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의 著者は “苦痛과 奴隸의 時節”을 벗어나, “平靜과 自由”¹¹¹⁾의 狀態에 安住한다. 나아가, 平和時 軍隊의 被動的인 服從이 너무도 生生하였음도 不拘하고, 그는 참다운 偉大性을 그 속에서 發見한다.¹¹²⁾ 여기서 作家의 幻滅과 그 治癒를 말해주는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라는 意味깊은 表題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 題目은 오랜 彷徨 끝에 諦念과 信賴와 充滿의 狀態에 멈춘 한 靈魂의 平衡을 證言하고 있기에 더욱 그 意義가 큰 것이다,

大革命 直後에 태어나. 第一帝政, 百日天下, 王政復古, 七月革命과 같은 政治, 社會的인 소용돌이 속에서 半生을 보내며, 出生에서 오는 不運, 좋지 못한 健康, 不幸스러운 學校生活, 失敗作으로 끝난 軍隊生活, 滿足을 찾지 못한 作家로서의 欲望, 家庭的인 不幸에 뒤따른 쓰라린 戀愛, Paria로 轉落한 詩人이라는 職業 等, Vigny의 生涯는 幻滅의 連續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狀況에 處하건, 그 狀況을 料理하여, 이를 自身の 性格, 作品내지 運命에 따르도록 하였음을 이미 보아왔다. 이는 결국 그의 宿命論과 自由意志라는 두 힘의 結果로 보여진다. 또한 <S.G.M.> 著者は 어머니의 嚴格한 教育을 받은 후, 軍隊生活을 하는 가운데, 말없는 老兵들의 自己犧牲의 教訓을 받고, 人間條件에 對한 苦惱에 찬 摸索을 통하여 自身の 運命과의 鬪爭에서 勝者가 되었음도 考察하였다. 그리하여 1835년에, 그는 外的인 事件에 抵抗하지 않고 自身の 運命을 甘受하며, 그의 使命을 다하는 Renaud 大尉를 讀者에게 提示하였다. 同時에 그의 pessimism의 主根源이었던 自己 生의 不運에 對한 反抗에 終止符를 찍는다.

<La religion de l'honneur>는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가 發表되던 1835년까지 Vigny의 精神世界의 頂点이며, 그를 지켜준 하나의 宗教이다. 또한 現代의 不安한 人間存在에 하나의 새로운 삶의 正當性을 賦與하고 있다. E. Estève가 指摘하였듯이¹¹³⁾ 名譽를 위해 어떠한 期待도 두려움도, 過誤도 怨望도 없이 人生이라는 길고도 힘겨운 課業을 完遂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Vigny의 꿈이며 생각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理想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人間苦의 莊嚴함¹¹⁴⁾을 사랑하며, 보다 밝은 人類의 앞날을 위해 오직 人間만을 믿었던 Vigny의 求道者의 姿勢는 높이 評價되어 마땅하리라 믿는다.

Bibliographie

1. Oeuvres complètes d'Alfred de Vigny, tome I, Notes et bibliographie établis par F. Baldensperger,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50.
2. Oeuvres complètes d'Alfred de Vigny, tome II, même édition, 1948.
3. Servitude et Grandeur militaires, introduction, notes et variantes par F. Germain, Edition Garnier Frère, 1965.
4. Viallaneix (P.) : Vigny par lui-même, Seuil, 1964.
5. Castex (P.-G.) : Alfred de Vigny, Hatier, 1957.
6. Estève (E.) : A. de Vigny, sa pensée et son art, Garnier, 1923.
7. Bonnefoy (G.) : La pensée religieuse et morale d'A. de Vigny, Hachette, 1944.
8. Citoleux (M.) : A. de Vigny, Persistences classiques et affinités étrangères, Champion, 1924.
9. Flottes (P.) : Pensée politique et sociale d'A de Vigny, Belles lettres, 1927.
10. Dupuy (E.) : A. de Vigny, sa vie et l'oeuvre, Paris, 1915.

